

이덕일의 '역사의 창'



호남가야와 낭인 야쿠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 필자는 이란에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전북 남원의 유목리 고분군을 '호남가야 유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칼럼이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남원을 '기문가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자 남원 시민들이 연일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성서인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기문을,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남원이라고 우겼는데, 이를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등재의 논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길한 현상의 조짐은 2019년 12월 3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가야본성'이라는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중앙박물관은 '369년 가야 7국(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백제-왜 연합의 공격을 받음(서기)'라는 연표를 제시했다. '삼국유사'는 '금관-아라-고령-성산-대가야-소가야'의 6가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박물관 측은 이릉도 생소한 '비사벌·탁국·안라·다라·탁순' 등의 7가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 박물관 측이 괄호 안에 제시한 '서기' 역시 '일본서기'를 뜻한다. '일본서기'라고 써 놓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야사에 왜 일본서기?'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에 '일본'이란 단어를 빼고 '서기'라고만 표기했다.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는 슬픈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자화상이다.

중앙박물관이 말하는 369년조는 '일본서기' '신공(神功) 49년' 조를 뜻한다. 야마토왜의 신공황후가 재위 49년에 왜군을 보내 신라를 공격하고,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를 점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악명 높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구절인데,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버젓이 써 놓은 것이었다. 웃기는 것은 신공 49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249년이지 369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극우파들이 서기 369년에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우기기 위해서 120년을 끌어올린 것을 대한민국 중앙박물관이 그대로 받아들여 제시한 것이다.

현재 한국 역사학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신석호의 제자들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자찬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라는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호칭도 생소한 '호남가야'라는 말도 그 뿌리는 일본 극우파에 있다. '호남가야'는 대일항전기 아우카이 후사노신(鮎尾房之進)이, 일제 패전 후에는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주창했다. 한때 아우카이 후사노신은 1895년 일본도와 석유를 들고 경북공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죽이고 그 시신을 불 질렀던 낭인 야쿠자의

일원이다. 이 야쿠자가 역사 연구가랍시고 '일본서기 조선지명고'라는 저서를 냈는데, 이 책에서 '임나=가야'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 우겼다.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7'에서 "(아우카이 후사노신의 연구 결과는) '일본서기'에 왜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로 여겨진다"고 칭송했다. 이런 야쿠자의 논리를 지금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과 역사 관련 국가기관들이 추종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괴기하다고밖에 표현하기 힘들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극일(克日)을 넘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 나라 역사학자들과 국가기관들은 아직도 일본인들을 상전 모시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 민중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결성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는 영남과 호남의 애국 시민들이 결집해 만든 단체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진정한 지역감정의 극복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층은 나라 역사를 팔아먹고, 일반 민중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대장암



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속 소화기병원장

없어도 40세 이후, 가족력, 병력 등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하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의미하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섭취 등의 식습관, 흡연과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해 발병 위험을 높인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하며 암 발생률은 맹장 및 상행 결장과 S상 결장이 각 2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직장(20%), 횡행 결장(15%), 직장-S상 결장(10%), 하행 결장(5%) 순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기 암(1기)은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 5년 생존율도 75% 정도로 높다. 그렇다고 치료가 쉬운 암은 아니다. 조기 증상이 없어 학계에서는 대장암 대표 증상을 '무증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빈혈, 혈변(장출혈)과 배변 습관 변화,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자각하는 시점은 대부분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따라서 의사들은 '정기적 검진'을 강조한다. 40세 이후부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는데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5년 주기로 검사 받고, 용종이 발견된다면 암 예방을 위해 1~2년 단위로 검사 받는 것을 권유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의뢰진이 모니터로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고,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선종성 용종(폴립)은 검사 중 제거할 수 있어 대장암 조기 진단과 예방에 효과적이다.

단과 예방에 효과적이다.

용종은 대장 점막에 혹처럼 돌출된 용기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종이라 부른다. 선종을 방치하면 5~10년 후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0세 이상 10명 중 3~4명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다.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률이 70~90%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검사 전 장 정결제 섭취나 금식 등의 불편함이 있지만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은 필수다.

대장 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 암이 확진되면 MRI, PET CT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이 병소를 포함한 수술 범위,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조기암은 내시경 시술로 완치할 수 있다. 전이성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힘들지만 전이 위치와 개수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보통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함께 전개한다. 2기나 3기 대장암 환자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술 치료 이후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

보조 항암 치료는 수술 상처가 아물었다고 판단되는 2~3주 시점에서 시작하며 3기는 보통 3~6개월 정도 시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조 항암 치료 시 재발률은 30~40% 정도 감소하며, 전체 생존 기간은 3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고

잊혀진 '5·18 가로수 길' 우리가 지키자



나도팔 전남자연사랑연합 이사장

지난달 광주일보에서 담양군 소재 5·18 가로수와 관련해 '군부독재 시절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 40년간 지역민들도 존재 몰라'라는 뜻밖의 기사를 접했다. 내용은 5월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만든 '5·18 가로수 길'이 아파다는 것이었다. 5·18 가로수가 잊혀진 채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런 뜻깊은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번 놀랐다.

5·18 가로수 길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30년사를 보면 1981년 우리 지역 선각자들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주축이 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성금을 모으고, 뜻 있는 독자가 (고 흥승민 박사, 최상욱 ㈜남화토건 회장)들의 도움을 받아 '전남청소년육성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에 성암야영장(현 성암국제수련원)을 개원했다.

전남청소년육성회는 5·18 당시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리고 그때의 아픔을 잊지 말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서야 한다는 뜻을 담아 수북면 입구에서 성암야영장을 잇는 도로 양쪽에 가로수 길을 조성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길 양편에 심어진 가로수의 종류가 18종이어서 5·18을 연상시킨다.

40년이 흐른 지금, 일명 5·18 가로수는 아름드리 수목으로 성장해 명품 가로수 길로 변모했고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됐다. 봄이면 벚꽃과 목련이 피어나고, 여름이면 플라타너스와 메타세쿼이아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캐나다단풍이 빨갛게 물들며, 겨울이면 히말라야시다와 측백나무가 푸름을 만들어 낸다. 해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8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 가로수 길을 오가면서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가로수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 훼손되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그 명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논두렁을 태우면서 부주의로 가로수에 불을 붙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 등 각종 시설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무참히 베어 내기도 했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가로수 바로 옆에 전신주를 세워 가로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산사태로 유실된 하천 복구 공사를 하면서는 가로수가 들어설 자리를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렸다.

5·18 가로수 길이어 지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고 한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와 전남도, 공공기관 등은 아예 관심도 없고, 5·18 단체는 5·18 가로수 길에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지역에 5·18 유적지가 많아 5·18 가로수 길 정도는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18 가로수 길을 만든 선각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안다면 도저히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부독재 시절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던 5·18 가로수 길의 존재가 40년 만에 드러났음에도 이를 널리 알려져,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주체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차례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 지켜 내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죽어가는 가로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를 말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잊어버리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일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한다. 5·18 가로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18 단체, 성암국제수련원, 전남도 등 관계 당국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5·18 가로수 길에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알림판 등을 세우고 일시적인 복구야 아닌 항구적인 원상 복구 계획을 수립해 5·18 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社說

캐스퍼 열풍 '광주형 일자리' 희망이 보인다

국내 최초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첫 차인 '캐스퍼'의 양산(量産)을 시작했다. 현대차가 GGM에 위탁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캐스퍼 예약은 첫날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이미 올해 생산분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GGM은 어제 캐스퍼 1호차 생산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캐스퍼는 광주시민과 노사, 이용섭 광주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자동차"라면서 "사회적 대화협부터 신차 출시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이뤄 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제 있었던 캐스퍼 온라인 사전 예약에 직접 참여해 구매 약정을 하기도 했다.

캐스퍼의 온라인 예약 불량은 첫날에만 현대차(내연기관차) 중 역대 최다인 1만 9000대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올 연말까지 1만 2000대, 연간 7만 대 규모로 생산될 캐스퍼는 실용성과 안전성은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로써 처음 추진된 지 7년 만에, 지난 2019년 1월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만에 첫 성과물을 내놓게 됐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노사민정 이사회적 대화협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만큼 첫 차 생산을 지켜보는 광주 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캐스퍼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흥행을 계속 이어 가려면 무엇보다 노사 상생의 기업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미쓰비시,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배상하라

대법원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양금액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미쓰비시 중공업)는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금까지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미쓰비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분쟁이라 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다시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대법원의 재항고 신청 기각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과와 함께 조속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940년대 말 14~15살 어린 나이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모두 90세를 넘겼기 때문이다.

나주 출신 양금액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서 펴낸 자서전 '죽기 전에 듣고 싶은 한마디'에서 "하루빨리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정략적 계산을 벗어나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독일 지리학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도시 공간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자연조건·교통수단·접근성 등이 동일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가 있지만, 중심지와 배후지를 설정해 도시 계층과 분포의 규칙성 및 중심지 기능 입지 등을 밝혀냈다. 고급 상가나 종합병원 등이 있는 고위 중심지와 소매 점포 등이 있는 저위 중심지를 구분한 뒤, 교통이 발달할수록 고위 중심지는 발달하지만 저위 중심지는 쇠퇴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심지는 교통·금융·교육·행정 등과 같은 3차 산업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교

인트 늘어났다. 충청권도 6.7%에서 8.1%로 1.4% 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나머지 지방은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인구와 혁신 역량 및 재정 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도권은 지방이 가졌던 것들을 모조리 흡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수는 없다. 지방 곳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더 이상 내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편의성

배후지와 중심지

을 높이고 충청권까지 영역을 넓혀 각종 시설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사람-일자 등을 공급하 통비의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가 0이 되는 지역이 배후지의 끝이 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다만 여기서 배후지는 오로지 중심지의 서비스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동적인 공간으로만 설정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현대경제연구원들이 1990~2019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에서 47.4%로 5.1%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